today ganghwa
강화투데이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가는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2024년 5월 30일 제 63 호

INDEX | 1~8면 • 강화군소식 | 9면 • 강화인천뉴스 | 10~11면 • 역사문화기행 | 12면 • 오피니언 | 13면~14면 • 훈훈한세상 | 15면 • 건강참살이 | 16면 • 동네가꿈이(광고)

강화역사박물관 미디어 월과 실감 영상관 설치 운영

강화군, “강화의 역사를 더욱 실감 나게 즐겨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

강화역사박물관 디지털 실감 영상관

강화역사박물관 미디어 월

강화군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관람객과의 소통을 위해 강화역사박물관에 미디어 월과 디지털 실감 영상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었다,

대형 LED 미디어 월은 강화역사박물관 로비에 세로 10미터, 가로 5.8m 규모로 설치 되었으며, 이곳에서는 1년 내내 고려산 진달래, 민머루 여름 갯벌, 망월 벌판의 논, 전등사의 겨울 전경까지 사계절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기술과 문화유산의 결합을 통해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강화의 역사 콘텐츠에 몰입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됐다.

단군신화를 바탕으로 한 곰과 호랑이의 게임형 콘텐츠와 포토존을 조성했고, 어재연 장군의 수자기는 고화질 콘텐츠로 제작해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과 그 질감까지 느낄 수 있도록 마련했다.

특히, 1871년 신미양요 광성보 전투가 있었던 오는 31일(음력 4월 24일)에는 이곳에 어재연 장군의 수자기가 디지털로 게양될 계획이다.

북한 평양미술관에 있는 강화행렬도를 통해 조선 후기 강화의 모습과 백성을 사랑하는 왕, 철종의 등극까지 볼 수 있도록 구현했고, 신미양요 전투 장면을 그대로 옮긴 ‘개화기 강화’ 영상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 시절 백성들의 마음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박물관을 찾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위해 양방향 인터렉티브 전시인 ‘강화갯벌’도 선보인다. 관람객들은 영상관 바닥 전시 면에 뛰어들어 갯벌에 살고 있는 다양한 게들을 쫓을 수 있는 게임도 즐길 수 있다.

상설전시실 마지막 공간에 있는 디지털 실감 영상관은 관람객들이 마치 시대 속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성됐다.

군 관계자는 “강화역사박물관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강화의 역사와 자연 콘텐츠를 활용해 첨단기술과 결합한 전시를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강화군, 선수항 공영주차장 9월 준공 예정

서도면 주민 및 관광객들 편의 증진, 주차난 해소 예상

강화군, 선수항 공영주차장 조성

강화군이 화도면 선수항에 조성중인 공영주차장 사업이 올해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규모는 사업비 15억 원, 부지면적 2,218㎡에 주차면수 70대 규모로 주차장이 완공되면 주차난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수항은 서도면을 오가는 여객선의 항로가 기존 내가면 외포리에서 선수항으로 변경되면서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주차난으로 서도면 관광객 및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에 군은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서도면 발전 계획 및 서도연도교 건립 추진에 발맞춰 선수항에 선제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군 관계자는 “길상면 온수리 제3공영주차장과 강화읍 관청리 제4공영주차장 사업도 올해 8월 준공 예정으로, 원도심과 관광지 등에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를 발굴·계획해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시 교육청 및 강화교육지원청과의 협력으로 교육 발전을 위한 추진

강화군, 지역 교육 현안 논의 위한 간담회 개최

교육발전특구 사업 및 교육현안 간담회

강화군이 23일, '교육 현안 논의와 교육 발전 특구 등 교육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지역의 교육 현안을 논의하고 강화군 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강화교육지원청 김성환 교육장을 비롯한 강화교육지원청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관계자, 강화군청 교육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외부 우수 강사 채용을 위한 강사료 현실화 ▲학교 단체 관람 등을 통한 강화군 신규 관광시설 활성화 ▲미래형 우주 탐험가 체험프로그램 등 강화천문과학관 활용 교육 ▲가족 체류형 농촌 유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공백없는 늘봄 운영체제 구축 ▲강화군 교육발전 특구 내 학교 복합시설 설치 등 교육 현안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이번에 교육 발전 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강화군의 특구 운영 방안과 향후 교육 발전을 위한 군과 시 교육청, 강화교육지원청 간의 다양한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강화군이 교육 발전 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군민의 기대감이 큰 상황 속, 교육 발전 특구 성공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아이들이 우수한 교육을 누릴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1월~5월분 소급해 약 22억 원 지급, 6월부터는 매월 5만 원씩 지급 예정

강화군, 8,818명에 농어업인 수당 첫 지급 완료

강화군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매월 5만 원(연 6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농어업인 수당은 1월~5월분을 소급해 1인당 총 25만 원이 지급됐으며, 6월~12월까지는 매월 초 5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는 23년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임업·어업 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어업인으로, 2021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기준 강화군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이다. 신청 자격 미달 및 타 분야 종합소득액 3,700만 원 이상인 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급대상자는 총 8,818명으로, 지급액은 약 22억 원이다. 올해 총 53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지난 4월 19일까지 농어업인 수당 신청을 받아 지급 자격을 검증했으며, 농어업인 수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한편, 지급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제외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농어업인 수당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 최벽하 기자

농어업인 수당 첫 지급

강화군보건소,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강화군보건소,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강화군보건소는 지난 21일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코로나 유행 이후 시설 내 집단감염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해짐에 따라 관내 27개소의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시설 내 감염관리 필요성 및 기본개념 ▲상황별 방역 수칙 ▲다제내성균 감염관리 ▲올바른 개인보호구 사용 ▲감염병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교육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감염취약시설이 법정 감염병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바란다"면서 "지역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보건소는 감염관리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방역물품을 배부하는 등 감염 예방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강화군, 선원면 주민복합센터 신축 2026년 완공 예정

지하 1층 ~ 지상 3층 규모 / 주민센터, 동아리실, 헬스장 등 주민 복합커뮤니티 시설 조성

강화군이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선원면 주민복합센터 신축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1989년 건립된 선원면사무소는 35년의 세월이 흘러 노후됐을 뿐 아니라, 연면적 1,497.18㎡로 협소해 주변 여건 변화에 발맞춘 청사 건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선원면에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되고 있어 향후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강화군은 기존 시설로는 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지난 2023년부터 선원면 주민복합센터 신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추진되는 새 청사는 약 10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선원면 금월리 252-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6,043㎡, 지하 1층~지상 3층의 연 면적 2,200㎡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청사에는 주민센터 뿐 아니라 다목적홀, 탁구장, 동아리실, 헬스장 등이 들어서며 주민들의 여가, 문화 공간 등의 기능도 함께하는 복합 커뮤니티 시설로 조성할 방침이다.

강화군은 청사 신축을 위해 지난 2023년 투자심사와 공공건축 심의를 통과했고, 올해 3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4월 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했으며, 5월에는 토지 보상까지 완료하며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실시설계 등 남은 절차도 신속히 추진해 올해 공사에 착공하고 2026년 주민복합센터 건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새롭게 변신할 선원면 주민복합센터는 주민들에게 교육, 건강, 문화 활동의 장을 제공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며,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강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강화갯벌 문화관광 활성화 연구회」 발대식 개최

강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발대식 개최

강화군의회(의장 박승한) 의원연구단체인 '강화갯벌 문화관광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최중찬)가 지난 28일 군의회 2층 특별위원회실에서 연구회 발대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연구회 소속 의원(박승한, 최중찬, 배충원, 한승희, 고복숙 의원)과 강화군청 관계 공무원, 안양대학교 강준수 교수, 이지선 교수 등이 참석해 강화갯벌을 활용한 문화관광 연구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토론했다.

한편, 강화갯벌 문화관광 활성화 연구회는 오는 11월까지 강화갯벌을 활용한 콘텐츠 모색 및 관광 수요 증대를 위한 연구에 돌입할 계획이다.

박승한 의장은 "강화의 갯벌을 활용해 관광을 활성화하고, 군민의 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중찬 대표의원은 "갯벌 관광 활성화뿐만이 아닌 세계유산 등재, 인구소멸 대응, 자연보호 등 다양한 생태자원을 활용해 군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신봉기 기자

강화군의회 한승희 의원,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수상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강화군의회 한승희 의원

강화군의회 한승희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 시상식에서 기초의회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수준 향상에 공헌한 인물을 발굴하기 위해 새한일보가 주최하고, 소비자저널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매년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그 공적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시상을 주관한 새한일보수상자선정위원회는 한승희 의원의 남다른 의정활동과 특히,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과제 발굴 및 입법정책 마련 등의 공로를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승희 의원은 '발로 뛰는 민원 해결사'라 불리며 지역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 의원은 이날 수상소감을 통해 "묵묵히 일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과 박승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덕분에 큰 상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함께 노력하는 일꾼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봉기 기자

강화군, 수산자원 확보 위해 점농어 26만 마리 방류

점농어 방류

점농어 방류

강화군이 23일, 연안 어장의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서도면 주문도 해역에 점농어 26만 마리를 방류했다.

서해안 해역에 서식하는 어종인 점농어는 외관이 농어와 비슷하고 몸에 점이 있으며 육질이 단단하고 맛이 좋아 어민과 낚시인들이 선호하는 대표 어종이다.

이날 방류 행사에는 강화군, 경인북부수협, 지역 어촌계장 및 어업인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강화군이 방류한 점농어는 지난해 11월 부화해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의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부가가치의 우량종자로, 내년 여름이면 성어로 성장하게 된다.

군은 이번 점농어 방류를 시작으로 7월에는 꽃게 67만 마리와 조피볼락 51만 마리를, 9월에는 패류종패(가무락)를 추가 방류할 계획이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최근 남획 및 어장환경 변화 등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돼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며, "연안 어장에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종자를 지속적으로 방류해 관내 어장의 수산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6월 7일까지 시행…급경사지와 공사 현장 37개소 대상

강화군, 여름철 우기 대비 안전 점검 실시

강화군, 여름철 우기 대비 안전 점검 실시

강화군이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 오는 7일까지 급경사지와 공사 중인 허가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물건 적치 및 배수로 정비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시설물의 간단한 보수·보강 및 안전조치 사항은 우기 전까지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기존에 관리되고 있는 급경사지 15개소와 공사 중인 허가 현장 22개소로, ▲수방 자재 확보 여부 ▲토사 유실·붕괴 등의 보호조치 여부 ▲침사지·배수로 확보 여부 ▲굴착법면 보호 여부 ▲비계 등 가시설물 설치 불량 ▲현장 내 비상 대기반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한다.

군 관계자는 "매년 태풍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면서 공사 현장 및 축대 옹벽 등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선제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 및 안전보안관과 함께하는 합동 안전 점검 진행

강화군, 여름철 안전사고 막아요! 유원시설 대상 점검

강화군, 여름철 안전사고 막아요!…유원시설 대상 점검

강화군이 지난 27일, 2024년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 안전 점검 추진 현황 점검을 위해 유원시설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강화군의 여름철 대표 물놀이장인 누리워터파크에서 진행됐으며, 건축 분야 민간 전문가와 안전보안관, 안전산업국장 및 담당 직원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점검 방식으로 이뤄졌다.

점검 내용은 건축물과 물놀이장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으로, 난간 모서리 등 어린이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했고, 노후 안내판 교체, 바닥 단차 정비 등을 지적했다. 지적 사항은 물놀이장 개장 전까지 시정 조치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민관 합동점검에는 강화군 안전보안관 3명이 함께 참여해 집중 안전 점검에 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군민들의 눈높이에서 점검함으로써 내실을 더욱 높였다.

군 관계자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집중 안전 점검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에 더욱 관심을 갖고 일상에서 손쉽게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가겠다"고 밝혔다.

강화군체육회장 및 중앙건설(주) 박영광 회장 강화군체육발전 기부금 오천만원 전달 황토길 개장식

중앙건설 박영광 회장, 강화군체육발전 기부금 전달

강화군체육회(회장 박영광)은 지난 10일 강화군생활체육센터에서 강화군체육회 이사회 및 황토길 개장식에서 강화군 체육 발전을 위해 기부금 5,000만원을 강화군체육회에 기부하였다.

박 회장은 "강화군 체육발전을 위해 기부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강화군체육회가 군민의 삶의 길 향상에 앞장서고, 한 단계 더 도약해 변화와 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2부 행사로 황토길 개장식에는 200여 명의 주요 내빈과 지역주민이 참석해 개장을 축하하며, '힐링 맨발걷기 체험'을 함께 진행했다.

황토길은 군민들의 건강한 체육 생활 기회 제공을 위해 기존 신정체육시설 체육공원을 활용해 총 길이 356m, 폭 2m의 산책로를 조성했다. 전천후 시설로 날씨와 계절에 영향없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맨발로 걸을 수 있다.

강화군체육회 회장직을 맡은 박 회장은 강화군 향토기업인 동우개발, 중앙건설 회장 재임 중에도 강화군 체육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벌여 왔다. 체육환경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을 자신이 이끄는 기업의 사회 환원 목표로 두고 앞으로도 군체육회 회장직을 수행하며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강화지역 맞춤형 벼'수원657호'포함 15개 품종 이앙 완료

강화군, 조생종 3년 차 시험 재배, 출원 목표

시험포 이앙

강화군이 지난 21일 예찰포(선원면 냉정리)와 시험포(화도면 덕포리)에서 강화지역 적응 벼 신품종 모내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모내기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을 중심을 진행했으며, 농촌진흥청과 강화군이 공동 개발한 '나들미'를 비롯해 고시히카리 대체 신품종 개발을 위한 '수원657호' 등 15개 품종을 이앙했다.

한편, 강화군이 외래 벼 대체를 위해 2020년부터 농촌진흥청과 협업해 추진 중인 '수요자 참여형 품종 개발 사업(SPP)'가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022년 추청을 대체할 신품종 '나들미'를 개발해 출원했으며, 이듬해 품종등록을 완료했다. 또한, 올해는 고시히카리를 대체할 신품종 조생종 '수원657호' 개발에 집중해 내년도 품종보호 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예찰포 운영 등을 통해 농업인에게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보급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겠다"며, "강화군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연구와 정책들이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강화군 농업아카데미 일반과정 하반기 교육생 모집

강화군 농업아카데미 일반과정 하반기 교육생 모집

강화군이 2024년 하반기 농업아카데미 일반과정 교육생을 오는 6월 3일부터 모집한다.

군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강화군 농업아카데미는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농업인 소득 창출 및 지속적인 발전, 평생 학습 실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교육프로그램은 총 6개 과정으로 ▲치유농업 ▲미생물 활용 ▲유튜브 마케팅 ▲농산물가공 ▲양봉(기초) ▲토마토현장컨설팅(고급)이다.

신청 자격은 2024년 1월1일 이전부터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농업경영체등록증을 구비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3일부터 21일까지로, 합격자는 6월 27일 개별통지한다. 1인당 2개 과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선착순 모집하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다.

접수는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whr950307@korea.kr)로 가능하며,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등 더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 최벽하 기자

정기적인 훈련 통해 안전한 민원실 조성

강화군, 특이민원 비상 상황 대비 모의훈련 실시

특이민원 비상 상황 대비 모의훈련_담당팀장 중재

특이민원 비상 상황 대비 모의훈련_경찰 제안 및 인계

강화군이 지난 28일, 군청 민원실에서 강화경찰서(심도 지구대)와 합동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 청원경찰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특이민원 비상 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전국적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훈련은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 및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제지,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 사용 및 비상벨 신고,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악성 민원인 제압, 경찰 인계 순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으로 진행돼 대응 효과를 더욱 높였다.

군 관계자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방문 민원인 및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만족스러운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기초생활수급가구 청소년에게 의료비 지원

불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웃사랑 행복 의료 지원

불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웃사랑 행복 의료 지원

강화군 불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유섭섭, 염명희)가 지난 29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기초 생활수급 가구 청소년에게 보철 치료비를 지원했다.

해당 청소년은 오랫동안 치통으로 고생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이 상황을 전해 들은 불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의료비 지원을 실시했다.

유섭섭 민간위원장은 "청소년의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번 사업을 진행했다"며 "특히,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해 언제든 손을 내미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에 염명희 불은면장은 "이웃을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위원분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사각지대 없는 불은면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며 인사를 전했다.

교동면, (주) 신백승, 어려운 이웃 지원에 100만 원 기탁

교동면에 전달된 이웃사랑 기부금

강화군 교동면(면장 조현미)은 지난 28일 ㈜신백승(대표 황용길)에서 어려운 이웃에 써 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면사무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신백승은 해마다 강화군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특별히 교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손명섭)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탁했다.

교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해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밑반찬을 지원했으며, 동검도365예술극장에서 영화관람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올해 역시 쌀과 쌀국수 나눔 활동, 저소득 주민 자녀의 대학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해 어려운 주민들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손명섭 민간위원장은 "기탁해 주신 뜻에 따라 교동면 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현미 교동면장은 "교동면 출신의 기업가가 고향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뜻 기탁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른 기업인들에게 좋은 모범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년 저소득층 27가구~37가구의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

강화읍 새마을협의회·부녀회, 사랑愛 집수리봉사

강화읍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 주도의 사랑愛 집고쳐 주기 사업

강화읍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 주도의 사랑愛 집고쳐 주기 사업

강화읍새마을지도자(회장 신봉기)부녀회장(김은숙)은 강화읍에 거주하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정 15곳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0일~25일(10일간) 시행했다.

가정을 찾아 실내벽지, 장판, 비가림창, 방충망 등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지원을 받은 김모(83세)여사는 "그동안 실내.외 집수리는 꿈도 꾸지 못했는데, 새마을단체에서 집수리를 해줘서 새집같다."며 눈시울을 붉히며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특히 강화읍새마을 격려차 방문한 강화군지회장(조인술)은 앞으로도 저소득층을 지속적으로 도우면서 주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꾸준한 봉사단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강화읍장(주우종)은 "지역내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직접 발굴하고, 한결같이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새마을강화읍협의회, 부녀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새마을에서는 읍.면을통해서 매년 27가구~37가구의 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 봉사를 9년 넘게 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운동이 일상생활 속으로 퍼지기를

한국자유총연맹 강화군지회, 저탄소 녹색성장 및 자원순환 실천 캠페인 펼쳐

한국자유총연맹 저탄소 녹색성장 및 자원순환 실천 캠페인

한국자유총연맹 저탄소 녹색성장 및 자원순환 실천 캠페인

한국자유총연맹 강화군지회(회장 박봉식)가 지난 25일, 강화읍 수협 앞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임원 및 회원 40여 명과 함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및 자원순환 실천 운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으로 지구를 지켜요'라는 표어와 함께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탄소 배출 저감 방법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유총연맹 강화군지회 박봉식 회장은 "회원들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 운동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작은 실천들이 씨앗이 되어 사회 전반으로 펴져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 강화군지회는 민주시민 의식 개선 사업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힘쓰고 있다.

- 서정진 기자

인천시, 강화·옹진 기회발전특구 지정 전략 모색

'기회발전특구 추진단' 첫 회의 열려 – '글로벌 톱텐 시티' 연계한 균형발전 추진 및 인구감소 대응 도모

배준영 의원, 강화군 남단 경자구역 지정 건의

인천광역시는 29일 시청 회의실에서, 인천시 기회발전특구 추진단(TF) 구성에 따른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천준호 인천시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유관 실·국장 및 경제청, 강화군 행정복지국장, 옹진군 기획예산실장 등이 참석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전략 수립을 위해 힘을 합쳤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의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특구의 입지·형태·업종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상향식 지역개발 추진 제도다.신청 대상지역은 비수도권과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으로 인천시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해당된다.

인천시는 지난 4월, '인천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용역' 착수 이후, 부서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관련 실·국장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인천시 기회발전특구 추진단(TF)을 구성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7일, 발표된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연계 추진 방향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천형 기회발전특구 전략 수립 연구용역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모았다.

추진단은 앞으로 특구 지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용역 진행 상황에 따른 중요 논의 사항 발생 시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실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부서장급 실무추진단도 유동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구 감소 지역이자 접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에 묶여 경제성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프로젝트 등과 연계한 지역 특화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강화·옹진군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한 다양한 사례 분석과 교수전략 강의를 통한 역량 증진

강화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직원「장애학생 행동중재」연수 실시

장애학생 행동중재 연수 실시

장애학생 ABA 행동중재 프로그램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환) 5월 24일(금) 유, 초, 중학교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 실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학생 행동중재」 연수를 실시했다.

당일 35명의 강화 내 유, 초, 중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 실무원이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에 참여하였다. 「모두가 행복한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주제로 충청북도 특수교육원 유정석 특수교사가 진행한 장애학생 행동 중재 연수는 긍정적 행동 지원의 이론적 배경, 행동 중재의 기본 원리, 행동중재의 실제의 3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교사의 역량 강화를 도왔다.

장애학생 행동 중재 연수를 통해 '긍정적 행동 지원'의 큰 틀 안에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학생들을 바라보는 교사들의 관점 재해석을 시작으로 전통적 행동중재와 긍정적 행동 지원의 차이점을 비교하며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닌 칭찬과 강화를 통한 사회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행동으로 대체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 A는 "자신이 그동안 교육이 아닌 행동 통제를 하고 있었다고 스스로 성찰하며 앞으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라고 연수 소감을 남기는 등 연수에 참여한 교사 및 특수교육 실무사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강화 내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 서정진 기자

기고

강화외성을 소개합니다

이경수

강화전성 원경

강화도에 대한 믿음

"남한산성과 북한산성, 강도(江都)를 내가 다 봤는데 지세와 형편은 강도가 가장 뛰어났다. 옛날에 김경징으로 인해 제대로 지키지는 못했지만, 이는 실로 김경징의 죄이지 어찌 지리 때문이겠는가."

영조 임금이 한 말인데요, 《승정원일기》에 나옵니다. 병자호란 때 강화가 청군에게 함락된 것은 김경징 등 지키는 이들의 잘못 때문이지 강화의 지형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화가 외적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믿음을 여전히 갖고 있던 영조입니다.

앞의 임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봉림대군 시절 강화에서 직접 병자호란을 겪었던 효종도 영조와 같은 생각이었지요. 효종은 강화도를 더욱 안전하게 지키려고 해안에 군사시설을 설치합니다. 월곶진, 초지진 등이에요. 강화에 진·보가 설치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효종 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조가 정말 강화에 직접 와서 지세와 형편을 따져 보았을까요? 예, 왔었습니다. 즉위 전 연잉군 시절에 강화 정족산사고에 왔습니다. 종부시 도제조 자격으로 봉안사가 되어 정족산사고 선원각에 어첩(왕실 계보의 대강을 뽑아서 적은 책)과 선원록을 봉안하러 왔던 것입니다. 연잉군은 취향당에서 선원각에 있던 기존의 선원록을 포쇄(曝曬)하기도 했습니다.

강화외성 구간은?

숙종이 즉위했습니다. 강화도 해안 빙 둘러서 진이나 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과 보 사이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 사이로 적선이 상륙을 시도하면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숙종이 진·보 사이 사이에 돈대를 설치합니다. 강화의 돈대 대개가 1679년(숙종 5)에 세워진 것입니다.

숙종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강화 동쪽 해안의 돈대와 돈대 사이를 잇는 성곽까지 쌓게 합니다. 이게 바로 강화외성입니다. 외성이 있으면 내성도 있겠지요? 예, 강화읍내 남산과 북산을 빙 두른 강화산성이 내성입니다.

강화외성은 삼군문, 그러니까 금위영·어영청·훈련도감 소속 군사들이 와서 쌓았습니다. 1691년(숙종 17) 8월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1692년(숙종 18) 5월에 외성이 완공됐습니다. 대략 10개월 걸렸네요.

그러면 강화외성은 어느 돈대에서 어느 돈대까지 구간일까요? 최종적으로 숙룡돈대에서 초지돈대까지입니다. 외성 구간에 포함되는 돈대를, 이후에 설치하게 되는 용두돈대는 빼고, 북쪽에서 남쪽 순서대로 적어봅니다.

숙룡돈대, 낙성돈대, 적북돈대, 휴암돈대, 월곶돈대, 옥창돈대, 망해돈대, 제승돈대, 염주돈대, 갑곶돈대, 가리산돈대, 좌강돈대, 용당돈대, 화도돈대, 오두돈대, 광성돈대, 손석항돈대, 덕진돈대, 초지돈대

그런데 말이죠, 강화외성 구간을 기록한 자료들을 검토해보면 조금씩 다르게 적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속수증보강도지》(1932)는 적북돈대부터 초지까지를 외성 구간으로 기록했습니다. 숙룡돈대와 낙성돈대 구간을 제외한 것이지요. 지금, 국가유산청 홈페이지도 사적 강화외성을 '적북돈대로부터 초지진까지 23km'로 설명하고 있습니다.(2024년 5월 17일부로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의 표는 이형상의 《강도지》(1696) 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금위영, 어영청, 훈련도감 군사들이 각각 구간을 나눠 외성 쌓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유수부(진무영)가 자체적으로 쌓은 곳도 있습니다. 표를 다시 보아주세요.

염주돈대에서 갑곶수문까지는 삼군문에서 외성을 쌓기 몇 년 전에 강화사람들이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휴암돈대부터 숙룡돈대까지는 삼군문이 외성을 완공한 다음 해에 강화유수부가 연장해서 축성한 것입니다. 역시 강화 주민들이 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화외성 구간은 '적북돈대~초지진'이 아니라, '숙룡돈대~초지돈대'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입니다.

강화외성 축성 상황

주관	축성 구간	축성 시기	투입 인력
강화유수부	숙룡돈대 ~ 휴암돈대	1693년(숙종 19)	
금위영	휴암돈대 ~ 염주돈대	1691년(숙종 17)~1692년(숙종 18)	약 4,000명
강화유수부	염주돈대 ~ 갑곶수문	1687년(숙종 13)	
어영청	갑곶수문 ~ 오두돈대	1691년(숙종 17)~1692년(숙종 18)	약 3,900명
훈련도감	오두돈대 ~ 초지돈대	1691년(숙종 17)~1692년(숙종 18)	약 3,600명

강화외성

강화전성

전성의 등장

1692년(숙종 18)에 완공된 강화외성, 흙으로 쌓은 토성(土城)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강화외성 상당 구간이 바다와 닿아 있습니다. 바닷물의 끊임없는 '공격'을 버텨내기 어렵습니다. 큰비라도 오면 더 심각해집니다. 엄청 발달한 장비와 기술로 쌓은 현대의 제방도 가끔 무너집니다.

이제 무너지면 다시 쌓고 무너지면 또 쌓는 지난한 개축 작업이 시작됩니다. 한쪽에서는 외성을 연장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허물어진 외성을 다시 쌓고 있는 겁니다. 강화 주민들이 이 일을 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노동의 길입니다.

외성 개축 과정에서 커다란 변화가 김시혁 유수 때 일어납니다. 영조가 재위하던 시기입니다. 청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벽돌성에 관심을 두게 된 김시혁입니다. 강화유수가 되자 외성을 벽돌로 다시 쌓습니다. 이를, 벽돌 전(塼) 자를 써서 전성(塼城)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화전성이 곧 강화외성인 것입니다.

1741년(영조 17) 6월 2일, 영조가 김시혁을 강화유수로 임명합니다. 1742년(영조 18) 6월 19일, 유수 김시혁이 아룁니다. "강화의 토성이 비를 맞으면 허물어지니, 청컨대 북경에서 벽돌을 구워 성을 쌓듯이 강화 토성도 벽돌로 개축하게 하소서." 영조가 허락했습니다. 1744년(영조 20)에 김시혁 유수 주도로 추진된 전성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아, 그런데, 전성마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장맛비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믿었던 전성이 붕괴하자 사람들은 '뭐니뭐니해도 석성(石城)이 제일이지.' 생각하게 됩니다. 붕괴 초기에는 벽돌로 다시 쌓다가 1746년(영조 22)부터 돌로 바꿔 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박제가는 《북학의》(1778)에서 벽돌의 우수성을 여전히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은, 벽돌은 돌보다 단단하지 못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대답할 수 있다. 돌 하나가 벽돌 하나보다 단단할지는 모르지만, 여러 개를 쌓았을 때는 벽돌이 돌보다 단단하다."

박제가는 또 전성의 붕괴 원인을 이렇게 짚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화에 있는 벽돌성은 자주 무너져서 쓸모가 없다고 한다. 그 때문에 벽돌성을 쌓자고 처음 제안한 사람에게 그 잘못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쌓은 방법이 잘못된 것이지 벽돌의 잘못이 아니다." 쌓은 방법이 잘못된 것이지 벽돌의 잘못이 아니다? 정답이 무엇인지는 바다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애초 외성을 쌓은 것은 삼군문이지만, 이보다 몇 곱절 힘겨운 개축은 오롯이 강화 주민들의 몫입니다. 1779년(정조 3), 강화유수 홍낙순이 상소했습니다. 강화전성 관련 부분을 《정조실록》에서 옮깁니다.

"천하의 일은 시작이 있으면 끝맺음이 있는 것이고, 괴로울 때가 있으면 편안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외성을 개축하는 일은 빙빙 도는 고리와 같아서 주민들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심도 백성들의 속담에 '아! 이놈의 성을 쌓는 것이 장강과 같아서 끝이 없구나! 저 장강물이 끊어져야만 이 역사가 끝나리.' 하는 말이 있으니, 그들의 원망하고 애통해하는 정상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끝없는 축성역에 강화 백성들은 완전 탈진입니다. 장강(長江, 강화해협)은 끊어지지 않았고, 역사(役事)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미양요 이후인 1873년(고종 10) 봄에도 용진진에서 제물진까지 새로 여장 갖춘 석성을 쌓았습니다.

강화외성, 시작은 토성이었는데, 그걸 벽돌로 고쳐 쌓다가 이후에는 석성이 됐던 것입니다. 일부 구간은 토성으로 개축하기도 했습니다. 옛사람들의 땀과 눈물 그득 스민 외성, 아쉽게도 남아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전성 일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곶돈대와 광성보를 잇는 해안도로에 있습니다. 불은면 오두리 오두돈대 바로 남쪽입니다. 길이 200m 정도로 말해지지만, 근래에 매끈하게 복원한 것이 대부분이고 옛 전성 그대로 남은 구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밑바닥엔 큼지막한 돌은 앉히고 그 위에 겹겹이 벽돌을 쌓았는데요, 남은 곳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속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월이, 물결이, 그리고 거대한 나무뿌리가, 벽돌성을 부수고 뒤틀어 놓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일부나마 남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생각해봅니다. 벽돌과 돌 중에서 백성들이 덜 힘들고 덜 부담되는 축성 재료는 무얼까?

무거운 돌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벽돌이 운반하고 작업하기에 더 편하겠지요. 그런데 벽돌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돌은 그냥 있는 걸 캐다가 쓰면 되지만, 벽돌은 적절한 흙을 구해서 구워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땔감이 듭니다. 나무가 많이 필요합니다. 강화는 질 좋은 돌이 풍부하지만, 산은 대개 민둥산, 나무가 부족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돌보다 벽돌이 백성들을 더 힘들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속이 노출된 전성

기고

“마니산 정기받아 내년 APEC은 꼭 인천에서” … 강화군민들 응원 뜨겁다.

이 두
언론인
(전 조선일보 인천취재본부장)

강화도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다소 낯설게 여겨지는 ‘2025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회담’을 인천에 유치하자는 바람이 인천 전역에 강하게 불고 있다. 강화군도 각종 행사와 모임에 ‘2025 APEC 인천 유치 기원’ 플래카드를 내걸고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강화군 곳곳에는 유치 기원 현수막이 게시돼 있으며, 군과 읍면은 물론이고 이장단·노인회·새마을협의회·주민자치위원회도 환경정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APEC 인천 유치를 외치고 있다. 강화군과는 그다지 상관없을 것같은 대형 국제 행사에 강화군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기원하는 것이다. 대체 APEC이 뭐길래 강화군은 물론이고 인천 전체가 이렇게 총력을 기울여 유치에 나서는 것인가. APEC 정상회의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현안과 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열릴 제32회 APEC 정상회의에는 6000여 명의 각국 정상과 경제인사들이 참석해서 약100일 동안 정상회의를 비롯해 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 기업회의 등이 진행된다. ‘세계 10대 도시’를 목표로 하는 인천시는 지난해 재외동포청 유치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내년에 대규모 국제행사인 2025 APEC을 인천에 유치해서 브랜드 가치를 더욱 키우고 글로벌 도시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려는 목적이다.

인천시는 지난 5월 22일 인천시 일대에서 외교부로부터 현장실사를 받았다. 개최도시 선정위원과 외교부, 행정안전부, 대통령 경호실 등 정부 부처 관계자,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실무진 등 19명으로 구성된 현장실사단은 22일 인천을 방문해 현지 실사를 벌였다. 이날 실사는 주요 회의 시설인 송도컨벤시아를 시작으로 아트센터인천, 상상플랫폼, 인스파이어 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인천국제공항의 순으로 진행됐다. 외교부에서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각종 환영 행사 자제와 현장실사 비공개 진행을 요청해 와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에서 답사가 진행됐다. 시는 지난달 실사 대비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고, 3차례의 예행연습을 하며 회의장, 만찬장과 부대행사 시설, 숙박·공항시설,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며 예상 질의와 답변 내용 등을 꼼꼼히 준비해 왔다. 현장 실사단이 인천을 방문하는 동안 유치 염원을 전달하기 위해 송도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이동 동선과 주요 행사장마다 환영 현수막을 게시하며 실사단을 맞이했다.

내년 APEC 회의 개최지를 놓고 인천을 비롯해 제주와 경주 3개 도시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외교부는 6월 7일 시도별 유치계획 설명회 개최 후 6월 중 개최 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APEC 정상회의 중 1991년은 서울, 2005년은 부산에서 열렸다. 특히 부산에서 열린 대회는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고 부산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지리적 접근성과 송도컨벤시아 등 우수한 회의시설을 갖추고 있고,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2023년), OECD 세계포럼(2018년) 등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경험이 있으며 풍부한 숙박시설까지 보유하고 있다. 국내 최대 경제자유구역을 보유한 투자 요충지이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이 소재한 세계적 수준의 첨단바이오 생산기지인 동시에 15개 국제기구와 5개 글로벌 캠퍼스가 자리잡고 있어 APEC이 활용할 경제적 자원도 충분히 갖췄다. 제주·경주와는 남다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셈이다.

2025 APEC 개최 도시로 인천이 선정된다면 글로벌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1조5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2만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은 물론이고 강화도에서 적지않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강화군은 얼마전 2025 APEC 정상회의의 인천시 유치를 기원하며 마니산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마니산 정상에 있는 참성단은 단군이 나라를 열고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며 하늘에 제를 올린 유례가 깊은 곳이다. 강화도 주민들은 마니산의 정기를 이어받아 반드시 인천에 유치하라는 깊은 뜻으로 마음을 모아 마니산 일대를 깨끗이 한 것이다.

저연차 공무원 대상 공직 가치관 확립 기회 마련

강화군, ‘새싹 공감·적극 행정 워크숍’ 개최

새싹 공감 적극 행정 워크숍

강화군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저연차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새싹 공감·적극 행정 워크숍’을 개최했다.

민원 처리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은 특히 젊은 공무원들에게 공직 비전과 가치관을 확립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 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줄이고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세대공감 및 소통 프로그램 ▲공직 가치관 및 비전 설계 ▲적극 행정 교육 ▲숲 해설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돼 참여자들이 상호 소통하면서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여한 공무원 대다수는 이번 워크숍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특히 직장 내에서 세대 간 소통하는 법과 자신의 공직 비전을 설계하는 내용의 강의가 큰 호응을 얻었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저연차 공무원들이 공직 가치관을 확립하고 서로 소통하는 기회가 됐다”며, “상호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세대 간 소통이 활발해지고 조직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화군, 해강개발 ㈜강화리조트로부터 성금 2,000만 원 기탁받아

이웃사랑 성금 기탁식 (강화리조트)

강화군은 지난 20일, 해강개발 ㈜강화리조트(대표 이종홍)에서 지역사회 나눔의 일환으로 이웃돕기 성금 2,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달된 성금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강화사랑 연합모금에서 취약계층 및 저소득 가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손권용 해강개발 ㈜강화리조트 대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온정을 나눌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지역주민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의 손길을 내밀어주셔서 감사하다"며, "기부단체의 따뜻한 마음과 뜻을 담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성금이 의미 있게 전해지도록 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강화군, 제1회 호국 백일장 수상작 12개 작품 전시

5월 27일~6월 5일, 군청 중앙 현관에 전시 및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수상자 헌시 낭독 예정

강화군이 오는 5월 27일~6월 5일까지 8일간 군청 중앙 현관에서 '2024년 제1회 강화군 호국 백일장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이 호국·보훈과 나라 사랑을 주제로 지난 '2024년 제1회 강화군 호국 백일장 공모전'에 출품한 60개 시화 중 수상작으로 선정된 12개 작품이 전시된다.

또한, 수상작 12개 작품은 6월 6일 강화읍 견자산에 위치한 현충탑에서 개최하는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에서 전시를 이어가고, 초·중등부 최우수상 수상자 2명은 헌시를 낭독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처음 개최한 행사라 출품작에 대한 염려가 있었으나 참신하고 수준 높은 다수의 작품이 출품돼 수고한 학생들과 부모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매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제1회 호국 백일장 중등 최우수
(강화여자중학교 1학년 전해인_그날의 별)

제1회 호국 백일장 초등 최우수
(갑룡초등학교 5학년 조서연_창공)

독자 여러분의
훈·훈·한·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따듯한 이야기를 목격하거나 경험하신 독자께서는
강화투데이로 투고 해주세요!

많은 분들께 따듯함을 전달하여 함께 느끼고 함께 감동하며
숨은 곳에서 따듯함을 전달하는 분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주민을 위한 마을 활력소! 강화군, '길상마을센터 On' 개관

25일 개관식 개최…스터디카페·공유주방 등 다채로운 시설 마련

길상마을센터 온 개관식

길상마을센터 온 개관식

강화군이 25일, 지역주민과 함께 '길상마을센터 On' 개관식을 개최하며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길상마을센터 On'은 강화 남부 거점인 온수 원도심의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난 2019년 인천형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14-9번지 일원에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조성됐다.

이곳은 연면적 498.23㎡, 지상 2층 규모로, 1층은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스터디카페와 작은 도서관이 갖춰져 있고, 2층은 루프탑을 겸비한 마을 카페가 있으며, 별관에는 장소 대여와 요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유주방 등이 마련돼 있다.

'길상마을센터 On'은 계획단계부터 공사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이 함께 열정적인 논의를 거쳐 조성된 시설로, 지난 3월부터 길상마을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유병우)이 군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했고 금번에 정식 개관하게 된 것이다.

군이 주관한 1부 개관식은 국민의례 및 내빈 소개,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감사패 전달, 온 이음 순으로 진행됐으며, 개관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테이프 커팅식 대신 강화의 명물인 소창으로 만든 수건을 이음으로써 마을센터의 개관을 축하하는 의미를 되짚었다.

2부는 조합이 주축이 되어 마을주민·학생이 함께 하는 축하공연과 풍선아트, 메이크업, 생맥주 시음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돼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마을 축제로 진행됐다.

길상마을센터 On을 방문한 주민은 "좋은 시설에 감탄했고 마을에 필요한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기대감이 크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길상마을센터 On 개관으로 군민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체와 함께 운영해 문화·교육·여가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원도심의 활력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환경지킴이 사랑해 봉사단, 자연보호활동

5월25일 토요일 11시부터 3시간동안 환경지킴이 사랑의 봉사단은 망월돈대에서 창후리 해안가 3키로미터에 대한 자연보호활동 하였다.

보도자료

꿈을 노래하는 학교도서관 프로젝트를 통해

맞춤형 독서교육을 실천하는 강화여중

강화여자중학교(교장 정종길)에서 진행되는 맞춤형 독서교육인 '꿈을 노래하는 학교도서관 프로젝트'가 호평을 받고 있다. 이는 '진로독서'라는 큰 틀 속에서 학교별로 자유롭게 주제를 정해서 추진할 수 있는 인천시 교육청의 공모사업으로서 강화여중만의 방법으로 특색있게 구성된 교육활동이다.

"중학교에서의 진로독서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 말할 줄 알고, 직접 해보며 자신만의 꿈을 생각하고, 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행복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는 취지를 살려서 김혜연 사서교사의 기획 하에 진행되었다. 김 교사는 '노래'가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독서교육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빌루 보컬 스튜디오'라는 교육업체와의 콜라보를 이뤄냈다. 독서와 토의토론활동을 사서교사가 주도하고, 독서 감상을 노래 가사로 바꿔서 직접 불러볼 수 있도록 하되, 전문 보컬 코치진의 소수 정예 지도 과정을 포함하여 '발성법, 진성과 가성을 연결하는 성구전환법 및 레코딩 작업'까지 반영한 '준 아이돌 보컬 레슨'의 형태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활동에 특별 강사진으로 참여한 바빌루 보컬 스튜디오의 김신 대표는 평소 '이 세상에 음치는 없다. 누구나 가수처럼 노래할 수 있다.'라는 '바빌루'의 철학을 코치진들과 공유하며 학생들을 지도함으로써 "책을 읽고 난 후 감상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 중 노래를 통해 아이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바뀌고,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볼 때 뿌듯함을 느꼈고, 노래가 아이들의 진로 탐색 과정에서 꿈을 향한 동기 유발이자 든든한 친구로 자리잡게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강화여자중학교 도서관에는 이번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환경 조성으로 헤드셋을 쓰고 언제나 독서 감상을 피아노로 연주해볼 수 있도록 '피아노 연주 공간'을 마련했으며, '악보 필사 공간'도 준비함으로써 독서의 영역과 방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1학년 한맑음 학생은 "책을 읽고 할 수 있는 활동이 다양할 수 있다는 걸 직접 체험해보니 너무 재미있었고, 평소에도 노래에 관심이 많아서 꿈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기만 했는데, 직접 체험해 본 보컬 수업은 대만족이에요. 기회가 되면 꼭 다시 참여하고 싶어요!"라는 소감을 밝혔다.

학생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강화여중 도서관에서는 심화 프로젝트로 바빌루 보컬 스튜디오와 추가 협업을 통해 학생들이 레슨실을 견학하고 심화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해당기사는 강화여중의 요청에 의해 전달하는 기사로 강화군과 관련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강화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024년 강화군 또래 상담 연합회 발대식 개최

2024년 강화군 또래 상담 연합회 발대식

2024년 강화군 또래 상담 연합회 발대식

강화군이 지난 28일,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한 '2024년 강화군 또래 상담 연합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또래 상담자와 지도교사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또래 상담 연합회 활동 계획 안내, 위촉, 선서문 낭독, 또래 상담자 역량 강화 워크숍(송창현 강사) 순으로 진행됐다.

또래 상담자란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청소년으로, 이들은 고민을 가진 또래들을 도우며 정서적 지지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 강화군 또래 상담 연합회는 총 6개교, 70여 명의 또래 상담자로 구성돼 지난해와 연결성 있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2023년 워크숍에서는 '안녕? 오늘 하루 어때? 밥 먹었니?' 슬로건을 바탕으로 '안녕' 배지를 제작한 바 있다.

발대식에 참여한 또래 상담자는 "작년에 참여한 워크숍을 통해 제작된 배지를 받으니 더욱 소속감과 사명감이 느껴진다"며, "앞으로 또래 상담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또래 상담자들과 교류의 장을 마련해 보수교육 및 워크숍, 또래 상담 주간 캠페인, 지도교사 간담회 등 또래 상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에서 운영 중인 강화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개인 상담, 집단상담, 부모 교육, 청소년 안전망 사업 등 관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서정진 기자

문의 ▶ **강화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032) 932-1388**

김포

삼성인쇄광고기획이 통진에도 떳습니다!!

보다 나은 인쇄와 광고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합니다!

명함 · 달력 · 스티커
봉투 · 수첩 · 전단지
상패 · 명패 · 청첩장
배너 · 깃발 · 현수막
팩스 · 스캔 · 포스터
인쇄 · 복사 · 쇼핑백
제본 무선 스프링
행사 홍보 기념품
책 전문 출판

삼성인쇄광고기획은 오랜기간 쌓아온 실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식 시스템과 최신의 기술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집, 기획, 출판 및 옵셋인쇄, 마스터인쇄, 캘린더, 각종 광고물 등 원스톱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로
클라이언트의 선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대량의 물량 수급에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인쇄시장 환경에 관심을 기울여 다양한 방면으로 도전하고 발전하는 회사가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쇄 · 디자인 전문

SS 삼성인쇄광고기획

☎031-988-9225 Fax. 031-988-9226
☎010-9755-6844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034

today ganghwa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